

김동현 조선대 배드민턴 감독 “더 좋은 운동 환경 만들고파”

5명 소수인원이지만 전국체전 결승 목표로 구슬땀 김학석배 전국대회서 여대부 단체전 등 전 종목 석권

조선대 배드민턴팀이 다가오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뜨거워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선대는 7명의 여자 선수로 구성됐는데, 현재 2명이 부상으로 재할 중인 가운데 5명의 선수만이 함께 하고 있다.

소수 인원에도 최근 조선대는 창단 2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대회 전 종목을 석권하는 기쁨을 누렸다.

조선대 선수단은 지난 10일 '2024 김학석배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대부 단체전, 개인 단식, 개인 복식, 혼합 복식 등 4개 종목 모두 정상에 올랐다. 단식 결승에서는 배우영(3년)과 이은희(2년)가 나란히 1·2위에 올랐다.

배우영은 “결승전에서는 엄청 피 튀기는 싸움이였다. 같은 팀이니까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플레이하기가 더 어려웠다”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 배우영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더 절실하고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 한 명만 분위기 처져도 같이 처지는 게 있다. 그래서 같이 긴장감을 끌어 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선배배끼리도 서로 친구처럼 재밌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대 지휘봉은 김동현 감독이 쥐고 있다. 그는 자신이 대학시절 머물렀던 조선대에 돌아와 선수단을 이끈 지 벌써 10년 차다.

김동현 감독은 “선수들이 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다. 이제 할 건 다 한 것 같다. 이곳에 처음 감독으로 와서 보고 느끼고 나 자신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전했다.

김 감독은 “처음엔 뭘 선수가 없어서 수급에 최선을 다했고 이후엔 성적을 내야 되겠다 싶었다. 그리고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후원도 여러 곳에서 끌어왔다”며 “아직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게 있다. 우리 팀을 학교 비속성팀이 아닌 육성팀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 있는 선수들에게 운동하는 데 환경적으로 더 좋은 변화를 주고 싶다. 이게 마지막 목표다”고 밝혔다.

학생이자 선수로서 수업과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선수들은 학교와 광주시체육회관 훈련 코트를 번갈아 다니며 체전을 위한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밀양에서 체전에 대비한 전지훈련에 매진했다. 학교 수업이 없는 쉬는 날만이라도 하루를 통으로 훈련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아영(2년)은 “체전에서 결선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팀은 단체전에 강한 것 같다.



김동현 감독.

또 소수라 대신 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다. 부상을 막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자주 열심히 하고 끝나고 아픈 곳은 아이스도 바로바로 한다. 요즘은 또 코치님이 마무리할 때 무조건 근력 운동도 시키셔서 그 덕에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훈련할 때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중력을 보여주는 이들이지만 코트 밖에서는 여느 대학



조선대 배드민턴팀 배우영(왼쪽부터), 이은희, 이아영, 오시연이 지난 20일 광주시체육회관에서 훈련을 마친 뒤 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생들처럼 순수한 모습이다. 이은희는 “훈련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같이 취미생활 즐기고 운동 마치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면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 이들 사이에서는 라켓 가방에 저마다 개성이 담긴 키링을 하나둘씩 모아 주렁주렁 달아놓는 것이 유행이다.

훈련을 마친 뒤 짐을 챙기기 전 선수들은 “어떤

가방이 제일 예쁘냐. 한번 누구건지 맞춰보라”며 해맑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다 착하고 성실하고 순수한 면이 있다. 선수들끼리도 단합이 잘 돼서 항상 좋은 에너지를 낸다”며 “이번 체전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선수들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경기 펼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여대, 창단 2년 만에 KUSF 대학배구 U-리그 우승

경일대에 3-0 승

광주여자대 배구부가 창단 2년 만에 2024 KUSF 대학배구 U-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여대는 지난 24일 경일대학교 체육관에서 치러진 U-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경일대를 세트스코어 3-0(25-17, 25-19, 27-25)으로 꺾고 우승을 확정했다.

2023년 창단한 광주여대는 지난 4월 3일 개막해 6개월간 이어진 대장정에서 탄탄한 전력을 선보이면서 대회 정상까지 올랐다.

손은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전공 1)가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됐고, 손은진(스포츠학과 2)이 세터상, 박유리(스포츠학과 2)가 리베로상, 김연화(스포츠학과 1)가 블로킹상을 받았다.

우승을 지휘한 최성우 감독은 최우수감독상 주인공이 됐다.

최성우 감독은 “강한 훈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만든 선수들과 이선재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다음 대회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학교의 명예를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



광주여대 배구부가 창단 2년 만에 '2024 KUSF 대학배구 U-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광주여대가 우승 후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 <광주여대 제공>

손흥민 “팀 떠나더라도 토트넘 레전드로 인정받고 싶어”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은 24일(현지시간) 팬들 앞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 생활이 끝나는 날이 오더라도 구단의 전설적인 선수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트넘 구단 소식을 전하는 스포츠웹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팬 포럼에서 팬들이 웃을 수 있도록 '레전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토트넘에서 선수 경력을 마칠 것이냐'는 한 팬의 질문에 손흥민은 “미래는 알 수 없다. 거의 10

년을 몸담은 여기서 계약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 이번 시즌에 집중할 뿐”이라면 “언젠가 이 구단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계속 웃는 광경, 여러분이 날 클럽의 레전드로 불러주는 걸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현 계약은 2025년 6월까지다. 다만 구단이 계약을 임의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될 걸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2024-2025시즌 초 부진해 현지 매체로부터 혹평을 시달리던 지난달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전설이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지난달 말 “구단의 전설이 되는 데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손흥민이 모든 걸 다 끝내면 이 클럽에서 존경받는 선수로 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난 손흥민이 여전히 더 많은 것을 해내고자 하는 의욕을 품는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게 우리 팀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댄 손흥민은 지난 시즌부터 주장을 맡고 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을 통틀어 164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광주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18회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간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 2023년 치러진 대회 모습.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 27일 개막

9일간 열전...2000여명 출전

광주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광주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제18회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는 27일 열전에 돌입한다.

오는 10월 5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총 26개 종목에 2000여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기량을 뽐낸다.

이번 대회는 26일 치러지는 사전 경기인 뉴스포츠 대회로 예열에 나선다.

400여명이 참가하는 뉴스포츠 대회는 VR·드론·스내이크볼·볼링골프·점보텍스·투혼·닌텐도·레이저사격·디스크골프·휠체어펜싱·보치아·탁구 등 총 12종목에 400여명이 참가한다.

이어 27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는 성화 봉송으로 시작되는 개회식과 화합경기가 벌어진다.

이날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겸 광주장애인체육회장장과 5개구 장애인체육회 임원 등 700여 명이 자리해 바구니 피라미드·저울농구·터져라풍선 등 4개 종목에 참여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한다.

대회 전 기간 치러지는 종목별 어울림대회는 조정·당구·볼링·탁구·보치아·좌식배구·파크골프·론볼·게이트볼·수영 총 1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총 900여명이 참가하는 종목별 대회는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광주 일원 10개 경기장에서 분산 진행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화합을 위해 종목별 시상으로 진행된다.

한상주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9월)
 일시 : 2024-09-01(일) ~ 2024-09-29(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9.16(월)-17(화) 오후 5시 한가위 특별공연
 장소 : 광주공인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